

편집자의 말

일본, 근대와 함께 부과된 과제

권숙인 _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객관적인 '타자'란 있을 수 없다. 중요한 타자라면 더욱 그러하다. 우리가 만들어 내는 타자의 상은 자아와의 원근법에 의해 구축되며 그 과정에는 제도적 제약과 역사적 제약이 작용한다. 개별 '저자'가 활용하는 수사적 도구 역시 권력의 방식이다. 따라서 타자에 대한 표상은 근본적으로 '픽션'이고, 그 작업은 '시적'(poetic)이고 정치적인 과정이다. 표상(representation)은 대상을 재-존재(re-present)시키는 행위가 된다. 한국에게 오랫동안 중요한 타자로 존재해 온 일본이 어떻게 인식되고 타자화되어 왔는가를 점검하는 것은 따라서 '우리'를 살피는 일이 된다.

영국의 정치가이자 소설가인 디즈레일리는 “동양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바쳐야 하는 사업”¹⁾이라며 동양에 대한 관심을 당대(19세기) 서양의 “똑똑한 젊은 청년들이 일생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정열의 과제”라고 선언하였다. 개화기 이래 한국 근현대의 많은 “똑똑한 젊은 청년들”에게도 일본은 “평생을 바쳐야 하는” 과제였다. 다만 디즈레일리가 발화하던 시점의 유럽 청년들이 추구할 수 있는 것은

1) 에드워드 사이드, 『오리엔탈리즘』, 박홍규 옮김, 교보문고, 2007, 20쪽에서 재인용.

정복과 쟁취의 대상으로서의 오리엔트였지만, 근현대 한국의 지식인/지도자들에게 일본은 극복하고 넘어서야 할 과제였다. 18세기 말 이래 본격화된 오리엔탈리즘이 오리엔트에 대한 서구의 인식체계이자 지배방식이었던 것처럼, ‘역오리엔탈리즘’으로서 한국인의 일본인식은 일본의 지배를 넘어설 수 있는 힘에 대한 의지, ‘탈식민’의 의지이기도 했다.

1. 민족·근대·일본

원경으로 조망해 볼 때 지난 한 세기 동안 한국의 일본인식에서 우선 두드러지는 것은 ‘민족’이라는 필터이다. 개화기 이후 일본은 민족의 자존과 독립이라는 당위를 위협하는 적이자 악으로, 극복하고 저항해야 할 대상이었다. 때로는 그 ‘극복’이 민족의 힘을 길러 일본을 넘어서는 비전으로 제시되기도 하고(신채호, 윤치호), 때로는 강자인 일본으로의 자발적인 동화(이광수)가 역설되기도 한다. 또한 개화기 이래 일본은 ‘근대’라는 절명의 민족적 과제와 함께 등장하는 ‘주인공’이기도 하다. 독립과 자주, 민족국가 건설, (자본주의적) 성장을 주요 축으로 삼았던 세계사적 근대의 한반도판 전개에서 ‘일본’은 핵심 주체 중 하나였으며, 한국의 입장에서는 근대와 함께 ‘세트’로 부여받은 해결 과제였던 셈이다. 한국에게 일본이 의미하는 것이 근대의 상징이자 자주적 근대로 가기 위해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인 까닭에 일본은 종종 세계(서구)라는 또 다른 타자와의 관계 속에 상대화되어 나타난다. 일본은 서구라는 대타자를 매개하는 “아류 근대”(이병철)이거나 “2등 열강”(신채호)으로, 혹은 서구가 주도하는 보편 법칙의 국지적 판본(local version)으로(증산) 상대화된다.

‘한국의 근대와 일본’이라는 주제를 두고 씨름했던 ‘지식인들’의 계보는 수운·증산·소태산에서 시작되어 신채호, 윤치호, 이광수를 거쳐 이어령, 그리고 식민체

협세대와 386세대 ‘인문학자’까지 이어지고 있다. 훨씬 도구적으로 일본을 인식한 이승만, 박정희, 이병철에게도 일본은 민족(국가)적 근대와 함께 짝으로 주어진 숙제였다. 박경리의 『토지』가 근대를 축으로 한 민족과 일본의 얽힌 타래를 소설적으로 풀어간 대서사임은 두 말 할 필요가 없겠다. 그러나 김윤식이 ‘호기심’으로 지켜보는 탈식민세대 및 그 이후 세대, 혹은 일본문화를 “재미있다”고 떳떳이 외치게 된 ‘김지룡 이후 세대’에 오면 이 계보는 맥이 흐려진다. 나아가 단순한 “세대감각”의 변화 외에도 포스트(post-)시대의 ‘시대감각’ 속에 근대/민족/국가가 탈중심화되고 민족과 국민됨을 근간으로 한 정체성은 곳곳에서 탈구를 경험하고 있다.²⁾ ‘근대의 기획’, ‘민족의 기획’ 이후(post), 민족의 타자로서 그 중요성을 과점해 왔던 일본이 차지하게 될 위상은 상대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일본, 그러나/또한

한국인의 일본인식에서 드러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모순’의 언설이다. 여기서 모순은 이중적인 의미이다. 한편으로 일본의 속성으로 파악되는 모순(예컨대 윤치호가 말하는 “꽃과 칼을 사랑하는 민족”)이 있고 다른 한편 일본에 대한 인식방식에서 나타나는 모순이 있다.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이 무수히 반복되는 “그러나/또한(but also)”의 역설로 일본인의 속성을 규정한 이래 일본인/일본문화의 이중성

2) 오랫동안 일본을 보는 절대적 프리즘이 ‘민족’이었기에 이 특집에서는 별로 주목하지 못했지만, 대일본관을 검토할 수 있는 또 다른 흥미로운 고리 중 하나는 젠더와 섹슈얼리티일 것이다. 서구 열강의 타자로서 일본이 여성화되어 온 풍성한 계보, 혹은 ‘오리엔트’ 전체가 여성이었음은 이미 학계에서 충분히 음미되어 온 주제이지만, 한일간의 ‘성적(섹슈얼리티와 젠더 모두 포함한) 관계는 어떠할까? 이 점과 관련해 본 특집에서 고찰한 유일한 여성 저자인 박경리의 소설이 어느 남성 저자의 일본관 이상으로 민족주의적이고 그 ‘민족’이 남성화되어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최근 한일관계를 다룬 대중문화에서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 종종 남성화되어 나타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분석지점이다. 여성의 시각에서 본 일본을 포함시키지 못한 뒤 늦은 반성에서 덧붙인다.

은 일본인론의 단골 메뉴로 자리해 왔다. 그러나 어느 인간집단이 모순으로부터 자유롭고, 어떤 문화가 수미일관 통합성을 유지하고 있을까? 신채호가 파악한 일본인의 모습이 주체적이고 상무정신이 탁월한 민족임과 동시에 잔인하고 억압적인 이중성을 띠고 있다면 신채호, 혹은 ‘우리’에게 필요한 독해방식은 이런 이중성을 일본의 국민성으로 본질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박노자가 지적한 것처럼 계몽과 식민성을 양날로 가진 근대성 자체의 속성을 간파해 내는 비판적 안목일 것이다.

다른 한편 일본에 대한 인식방식에서 나타나는 ‘모순’이란 일본을 부정과 긍정, 비난과 선망의 이중적인 태도 속에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100여 년간 한국(인)에게 일본은 또 다른 의미에서 “그러나/또한”의 존재이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저항해야 할 대상이지만 배워야 할 모델이자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다. 부정의 핵심 고리는 식민지배의 역사이며, 선망의 대상은 ‘칼’이 갖는 힘이다. 이 ‘칼’은 맥락에 따라 상무정신, 선진적 문명화, 자본 등으로 모양을 달리한다.

저명한 인류학자 클리포드 기어츠는 『국화와 칼』의 모순 어법인 “그러나/또한”을 단순히 일본문화에 내재한 모순성을 드러내는 언어표현이 아니라 대상(일본)과 자아(미국)를 특정한 관계 속에 배치시키는 수사적 도구로 분석한 바 있다. 일본을 불가해한 대상으로 놓고 시작한 베네딕트의 일본인론이 “그러나/또한”의 무한반복과 일본과 미국의 무한비교 속에 결국은 일본이 보이는 낯선 모순이 ‘익숙’해지고 미국의 ‘익숙함’이 낯설게 타자화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 지식인의 일본 파악에서 나타나는 ‘모순’과, 전쟁에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식민통치’를 준비하는 미국 전시정보국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베네딕트의 ‘모순’ 사이에는 양자의 정치적 입장만큼이나 큰 괴리가 자리한다. 베네딕트의 여유로운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피식민 조선/한국의 지식인에게 일본인식의 모순은 곧 일본에 대한 아주 고약한 딜레마이자 콤플렉스를 의미한다. 그 모순은 단순히 수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선택’과 ‘입장’을 통해 ‘해

결'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였다. 식민지 지식인 윤치호나 이광수 등이 일본이 상징하는 문명예의 선망 속에 당대의 일본과 조선의 차이를 식민모국의 지배 논리였던 진화론의 틀 속에서 이해하고자 한 것은 피식민자의 식민모방의 비극적 예이다. 혹은 일본예의 보다 적극적인 동화와 동일시는 식민지배라는 큰 틀을 깨는 것 외에 생각할 수 있는 아주 '논리적인' 모순 해결방식인 셈이다.

3. '한국의 일본' 한 세기

자아와의 원근법에 의해 구축되는 타자의 표상이란 정형화(stereotyping)를 그 속성으로 한다. 그렇게 해야만 타자가 고정되어 파악되고 거기에 비추어 자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0여 년간 한국에게 일본은 왜곡된 근대를 강요한 적대적 타자로 존재했고 그런 만큼 과도하게 추상적으로 혹은 과도하게 일그러진 상으로 파악되어져 왔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은 한 세기에 걸친 한국역사의 어디에나 있었고 동시에 어디에도 '없었다'. 이제 조금 더 근경으로 지난 100여 년간에 걸친 '한국의 일본'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자.

『일본비평』 3호의 특집을 구성하는 8편의 논문과 각각 한 편씩의 특집시론, 특집서평, 특별기고, 그리고 한 편의 연구노트는 일본이란 대상을 파악하기 위한 '시적이고 정치적인' 노력들을 풍성하게 펼쳐 보여 준다. 우선 박노자의 「'문명개화' 선망과 대일 적대심 사이에서: 신채호의 대일관」은 항일독립운동가이자 민족사학의 선구자라는 통념적 이미지로 알려진 신채호의 일본관을 좀더 복합적으로 읽어낸다. 신채호가 일본에 대해 보인 선망과 적대감의 기저에는 민족주의와 근대지상주의가 있었다. 특히 그가 고대사 연구를 통해 고대 일본을 한반도의 "열등한 제자"이자 "미개 야만"으로 소환하는 작업은 마치 근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식민사관을 통해 긍정적 자아상을 확립하고자 한 시도와 그 동기와 효과를 같이 한다. 그

러나 한 때 “열등한 제자”에 지나지 않았던 일본을 근대의 전범으로 마주해야 했던 데에 신채호의 딜레마가 있었다. 결국 근대지향성이 대단히 강했던 신채호는 근대 조선을 일본 내지는 서구적 “근대인”의 눈으로 응시하게 되고 그 결과 근대 일본의 “주체성”과 대비되는 조선의 “노예성”과 “타율성”을 발견하게 된다. “제국주의 침략자”이자 “적대적 타자”인 일본 속에서 근대로의 첩경을 발견하는 이율배반을 드러내는 것이다. 저자가 지적하듯, 그리고 이 특집에 실린 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하게 되듯이 신채호가 결국은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근대지상주의적 시각”은 최근 식민지배에 대한 한국학계 일각의 수정주의적 해석에까지 이어지며 향후 100여 년간의 일본인식의 틀을 예고했던 셈이다.

박광수의 「한국병합 전후 한국신종교 창시자들의 일본관: 수운, 증산, 소태산을 중심으로」는 동학, 증산교, 원불교 창제자의 일본관에 대한 비교분석이다. 이들 신종교는 19세기 말~20세기 초의 정치사회적 혼란기에 새로운 이상세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민중들에게 퍼져 나갔다. 수운, 증산, 소태산에게 일본은 조선 사회의 위기와 민중의 고난을 초래한 주요 주체 중 하나로, 조선민중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 ‘파악’되지 않으면 안 되는 ‘힘’이었다. 서구의 종교인 서학(西學)에 대응한 동학을 창시한 수운 최제우는 강한 민족중심적·사회개혁적 성향으로 일본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그에게 일본은 “멸해야 할 원수”였다. 이에 비해서 증산 강일순은 일본에 대하여 ‘우호적·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그 ‘긍정’은 상대적인 것으로, 열강의 침탈 상황에서 서양세력보다는 일본이 덜 위험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 외세의 침략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파악한 위에 조선통치의 주체로 일본을 ‘차악(次惡)’으로 인정한 셈이다. 소태산 박중빈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적대적 관계가 아닌 강자와 약자의 조화로운 관계”로 설정하고, 자리이타(自利利他)를 강자의 윤리로 강조했다. 나아가 강자와 약자의 위치 전도의 가능성을 설파하며 약자로서의 조선이 자립능력을 키울 필요성을 강조했다. 19세

기 말~20세기 초의 사회적 혼란기에 중요하고도 위협적인 타자로 등장한 일본은 그 자체로 적일 뿐만 아니라 ‘세계’(제국주의적 열강, 근대화의 선진세력 등)를 인식하는 프리즘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윤치호의 일본인식을 분석한 박지향의 「꽃과 칼을 동시에 사랑하는 민족: 윤치호가 본 일본」은 일본이란 ‘문제’와 관련해 평생 씨름을 한 또 다른 근대인의 소상이다. 60여 년에 걸친 일기를 통해 나타나는 윤치호의 모습은 일본에 대해 줄곧 흠모와 동시에 증오를 품은 복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명화를 구현한 일본은 조선이 배워야 할 모범이지만, 일본식민통치의 강압성과 조선민족에 대한 차별, 그리고 일본인들의 “부정적인 성격”은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일제 말기 윤치호가 보인 친일행적은 일본에 대한 그의 태도가 변했거나 내선일체론의 “사기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국주의적 지배를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인정한 데서 기인한다는 것이 저자의 논점이다. 특히 윤치호는 일본의 지배를 민족개조의 기회, 무엇보다 일본인들의 “전사적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했다. 민족의 힘을 기르기를 바랐던 윤치호에게 일본인은 무엇보다도 전사적인 민족이었고 그것이야말로 “일본을 식민지로 전락시키지 않고 강력한 근대국가를 이룰 수 있게” 한 근간이었다. 따라서 전사적 민족인 일본인들의 “꽃”과 “예술”에 대한 열정은 일본인을 불가해한 타자로, 일본을 ‘모순’으로 만드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이쯤에서 윤치호가 보이고 있는 “전사적 정신”에 대한 선망은 신채호가 보였던 고대조선의 “상무정신”에 대한 향수, 소태산이 강조한 “자립 능력”과 겹쳐지면서 열강의 침탈을 직면한 조선의 근대론자들이 느꼈을 ‘힘’에 대한 선망을 느낄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일본이 매개하는 이 ‘힘’은 이후 근대민족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열망과 합쳐지면서 ‘상무정신’, ‘경제발전’, ‘근대화’ 등으로 스펙트럼을 달리하며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일본이 전범으로서 체현하고 있는 ‘근대적 가치’에 대한

한국의 열망이 투사된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윤대석의 「일본이라는 거울: 이광수가 본 일본·일본인」은 ‘친일행적’과 관련해 적지 않은 논란과 분석의 대상이 되어 온 이광수의 일본관을 재점검한다. 이광수가 일찍이 만난 일본은 문명이자 동시에 억압이란 이중적인 존재로 조선에게는 모델이자 저항의 대상이었다. 그는 여기서 (마치 박노자가 지적하는 신체호의 한계처럼) 문명/억압의 이중성이 “근대, 혹은 식민체제 자체가 가진 양가적인 성격임을” 깨닫는 대신 “나 혹은 우리 민족이 강해져야 한다는 진화론으로” 나아갔다. 문명으로서의 일본은 조선의 문명 결여(야만)를 발견하게 하는 거울이었다. 이광수는 조선인 차별에 대해 본격하면서도 일본을 통해 조선을 야만으로 재발견하는 모순 속에 놓여 있었고 평생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이광수의 글 속에 수없이 반복되는 일본=문명 vs 조선=야만의 대조와 일본이 상징하는 문명과 근대에 대한 맹목은 “이광수 연구자들을 망연하게” 할 정도로 확고하고 일관적이며, 그런 점에서 그가 주장했던 1920년대의 민족개조론과 30년대 이후의 내선일체론은 일련의 연속선상에 놓이게 된다. 결국 이광수에게 일본은 “조선을 바라보기 위한 거울”이었고, 그런 까닭에 일본의 복합적인 실체나 일본이 드러내는 ‘모순’을 그 자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어떤 단일한 상으로 고정시켜 놓았다고 할 수 있다.

박태균은 「반일을 통한 또 다른 일본 되기: 이승만 대통령의 대일인식」에서 이승만/이승만 정권의 일본인식을 검토한다. 저자의 기본 논지는 이승만의 대일인식이 단순히 민족주의에 근거한 무조건적, 감정적 적대감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승만은 미국 중심의 세계체제 속에서 한국의 경제적 입지, 안보상의 위치 설정과 관련된 ‘실용적’ 정책을 추구하고 그 맥락 속에서 일본에 대한 경계와 비난의 입장을 견지했다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이승만의 인식 속에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적대감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50년대 후반 재일조선인의 북송문제가 불거져 나오며 극단적 반일의식이 표출되었는데, 이는 북한과의 경쟁의식 때

문이었다. 이승만이 추구한 것은 동아시아에서 “또 다른 일본”이 되려는 것이었다. 이승만은 전범 국가이며 한국전쟁 기간 중 혜택을 본 일본이 아닌 한국이 경제적으로나 안보상으로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핵심적인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러한 바람은 미국의 대일정책과의 괴리로 잇달아 실패하고 “일본과는 다른 의미에서 또 다른 일본이 되기 위한 이승만의 노력은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 이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대결, 전세계적인 냉전 심화 속에 미국에 편승하지 않을 수도 없는 데에 이승만, 혹은 한국정부의 딜레마가 있었다고 하겠다.

한석정의 「박정희, 혹은 만주국판 하이 모더니즘의 확산」은 한국의 개발체제의 식민지적 연원, 더 정확히는 제국의 주변부(만주)에서 왜곡된 개발체제의 연원에 대한 탐구이다. “기회의 땅” 만주로 간 박정희 및 일부 조선인들에게 만주국 체류의 가장 큰 의미는 “귀중한 현장 경영의 기회”였고 이 기회를 가져 왔던 조선인들이 5.16 이후 본격적으로 개발체제에 합류, 지도층으로 입성했다. 또한 박정희가 만주국에서 목격한 “모반”과 “항명”은 결국 그가 목숨을 걸고 단행한 5.16의 “회임지”로 기능했다. 특히 박정희가 만주국에서 목격한 것은 관동군이 밀어붙인 경제개발, 발전에 대한 강박적 신념, 혹은 “하이 모더니즘적 요소”였고, 이는 후일 박정희 시대에 4차례에 걸쳐 추진된 경제개발계획에 깊은 영향을 드리웠다는 것이 저자의 지적이다. “건설국가”, “속도와 획일성”, “무서운 동원체제”, “근검과 위생의 강조”, “신체의 규율”, “대중예술의 정치적 동원” 등 한국 개발체제기를 특징짓는 핵심적 요소들이 만주국으로 “축보”가 이어진다는 것이다. 1960년대 한국의 국가형성에서 ‘부국강병’이라는 이념과 사회동원적 요소를 전해 준 것이 메이지국가였다면 “개발과 건설을 지향한 개발체제의 구상에 더욱 밀접한 자원은 만주국”이었다는 이러한 지적은 한국적 근대화의 식민지적 연원이 갖는 복잡성을 훨씬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해 준다.

김철의 「민족-멜로드라마의 악역들: 『토지』의 일본(인)」은 박경리의 『토지』를 민족문학의 대작의 자리에서 잠시 끌어내려 작가의 일본(인)인식이란 기준에서 다시 읽어낸다. 그런 다시 읽기를 통해 『토지』는 과연 전형적인 멜로드라마 형식을 충실히 갖춘 “삼류 통속극”으로 거듭난다. ‘악당’ 일본인에 대한 “진부하고 상투적인 상상력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묘사들, “극단적인 감정 과잉”, 서술 방식상의 “심각한 혼란과 결함”은 이 소설이 민족과 그 대자로서의 일본 간의 양극화된 선/악의 세계에 기초한 민족-멜로드라마인 데서 연유한다. 일본(인)에 대한 언설의 동일함, 일본인에 대한 인종주의적 편견, 극단적인 혐오와 감정 과잉은 『토지』를 ‘민족’을 절대주인공으로 하는 멜로드라마로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런 까닭에 『토지』 속에 넘쳐나는 일본(인)론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없다’. “모든 개인의 이야기가 ‘민족’이라는 주인공의 이야기로 수렴되는” 이 멜로드라마는 방대한 분량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엮어 내는 인간사를 결국은 동일한 이야기 구조 속으로 수렴시킴으로써 소설적 긴장감이나 생생한 인물을 살려내는 데에도 실패하고 만다고 저자는 분석한다. 다시 읽어낸 이 소설은 결국 해방 후 반복적으로 생산·소비되어 온 ‘민족-멜로드라마’의 핵심 판본이 되는 셈이다.

황호덕의 「일본, 그럼에도 여전히, 세계의 입구: 『축소지향의 일본인』으로 읽는 한 후기지식인의 초상」은 1980년대 한국 독서계는 물론, 일본의 독서계와 비평계에 신선한 자극을 주었던 이어령의 『축소지향의 일본인』의 담론과 그 생산의 의미에 대해 묻는다. 이어령의 일본인론 자체는 전후 일본 독서계를 풍미한 ‘니혼분카론’(日本文化論) 기본 문법에 극히 충실하다. 비역사적이고 일괄주의적인 일본 파악을 통해 “일본(인)이라는 단위 그 자체를 창조하는 자기동일화 과정에 기여”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저자의 독해가 특히 신선한 부분은 주로 ‘니혼분카론’이라는 장르적 틀 속에서 소비되고 평가되었던 이어령의 일본문화론을 제국과 식민지 사이의 “접경지대”에 선 피식민자의 사유로 읽어내려는 시도이다. 식

민지의 경험, 후기식민지인의 심리를 강박처럼 간직한 이어령이 1982년의 시점에서 일본과 '대등한' 비교대상으로서 한국을 설정한 것은 단순한 비교방법상의 혁신이 아니라 종속을 넘어서는 “탈식민의 기획”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식민본국인에게 인정받겠다는 피식민자 특유의 열의, 이를 통해 세계성을 매개하겠다는 피식민자 특유의 보편주의”라는 맥락에서 읽어낼 때 이어령의 일본문화론이 갖는 역사성이 파악된다는 것이다. 저자의 독해를 통해 드러나는 이어령의 후기식민지인으로서의 자기 증명, 처절한 인정투쟁의 여정은 김윤식이 증언하는 식민체형제대의 “어쩔 수 없는 세대감각”에 대한 비장하고 구체적인 사례가 되고도 남는다.

특집시론으로 실린 김영옥의 「이병철의 일본 모방과 추월에 관한 시론」은 근대의 시작과 더불어 한국에게 모방과 학습의 전범으로 다가온 일본이 기업현장에서 구체적인 학습매뉴얼로, 배움의 터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소상하게 소개한다. 경제영역이야말로 근대의 ‘성취’가 가장 가시적으로 전시되는 곳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한국의 기업에게 일본이 “배움의 터전”이자 “모방의 대상”이 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인지 모른다. 특히 한국기업 중 가장 적극적으로 일본 배우기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삼성의 이병철에게는 일본이야말로 “배우기 쉽고 모방하기도 편한 벤치마킹 대상”이었다. ‘근대로 가는 창구’, ‘세계로 나아가는 출구’로 일본을 기술적으로 활용한 구체적인 예인 셈이다. 물론 이병철이 일본이나 일본인들에 대해 어느 정도 이중감정을 가지기도 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단편적으로 존재하고, ‘일본 배우기’의 궁극적인 목표는 “극일”이었음이 처음부터 강조되었지만, 기업인으로서 이병철에게선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은 한국인들의 모순된 의식이나 양가감정이 별로 표출되지 않는다.

저자가 지적하는 ‘자료상의 한계’로 이병철의 대일인식 자체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에 방법론상 난점이 있기도 하겠지만, “경제는 경제”라는 기업인의 실리적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강태웅의 특집서평 「거부에서 수용으로: 90년대 대중적 일본문화론의 특성과 변화」는 1990년대 한국의 대표적인 대중적 일본문화론 3권을 통해 당시 “대중이 갖고 있던 일본 이미지”를 추적한다. 저자는 1990년대 초반의 『일본은 없다』와 『일본을 알고 싶다』, 그리고 후반인 1998년 출간된 『나는 일본문화가 재미있다』의 일본재현 방식과 그 수용에서 나타나는 극적인 차이를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의 변화에서 찾고 있다. 즉 일본대중문화개방과 일본과의 대규모 인적교류가 일상화되면서 앞의 두 책이 취한 전략인 일본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 카타르시스”와 “실체 없는 자부심”을 충족시키는 식의 재현전략은 더 이상 독자들에게 어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반추해 보면 1990년대 초반 한국의 대중심리를 강타한 『일본은 없다』는 일본에 대한 오랜 민족적 콤플렉스가 분출된 클라이맥스인 셈이고, 동시에 그 콤플렉스로부터 서서히 벗어나는 시발점이었던 듯하다. 저자가 지적하듯 그만큼 객관적으로 일본에 다가갈 수 있는 단계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김윤식의 특별기고 「식민 체험과 인문학적 세대감각」은 일제의 식민지배가 한국의 ‘인문학 하기’ 전반에 드리운 심연을 성찰하게 하는 특별한 걸을 가진 글이다. 각 세대가 저마다의 체험을 통해 배태한 세대감각 속에 자신의 “문화담당 기능”을 구현하는 것은 보편적인 양상이겠지만, 식민체험과 그로 인해 왜곡된 근현대사 속의 한국의 인문학은 이 세대별 문화담당 기능과 훨씬 극적으로 마주해야 했다. “사회경제사의 부속물”로서 인문학을 하고 있었는지 모른다는 ‘고백’과 그것이 곧 저자 세대에 부과되었던 “문화담당 기능”이었다는 인정은 저자로 하여금 386세대와 “군의 세대”로 지칭되는 탈식민세대의 인문학 하기에 좀더 편안하게 마주하게 한다. 그러나 역사변혁의 주체성과 실천의 소명을 받아들인 386세대에 대한 저자의 연민과 연대의식, 존재의 ‘피투성’(被投性)으로 특징지어진, 그러나 동시에 ‘자유’와 ‘초월’의 특권을 가진 탈식민세대에 대한 저자의 지극한 우려 섞인 기대는 어

쩌면 ‘근대’에의 집착을 고수한 이어령의 고뇌와 ‘일본문화가 재미있다’고 경쾌하게 외치는 김지룡의 세대감각 사이의 위화감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는 “근의 다음 세대”, 즉 “신종자 순수 한글세대”의 세대감각에 대한 저자의 전망인데, 과연 이들은 식민체험의 세대감각이 완전히 소멸되고 인류사의 보편적 세대감각만으로 존재하게 될지 지켜볼 일이다.

연구노트로 실린 한상일의 「쓰가리무라와 하기 기행」은 오랫동안 한국인들의 의식에 ‘민족의 원흉’으로 자리해 온 이토 히로부미의 생의 궤적을 100년의 시차를 두고 기행한다. 우애와 관조의 분위기 속에 진행되는 이 여정을 통해 드러나는 이토 히로부미는 막부 말기 조슈번 빈촌의 최하층 농민의 자식으로 태어나 난세를 거치며 극적인 신분상승을 거둔 입지전적 인물이다. 쓰가리무라에서 하기, 도쿄, 영국, 서울로의 이동과 하야시 리스케에서 이토 슌스케, 이토 히로부미로의 변명(變名)은 그의 입신의 궤적이자 왜국 일본이 세계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 과정이다. 저자는 그러한 궤적에서 이토에 대한 주변인들의 평가를 살펴며 이토의 개인사와 역사의 전개를 겹쳐 보여 준다. 이러한 작업은 ‘병탄의 원흉’이거나 ‘제국 일본의 설계자’라는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정형화된 모습에서 한 발짝 나아가 ‘인간’ 이토 히로부미의 좀더 다채로운 얼굴을 드러내 주며 한국의 일본연구가 포괄하게 될 지평을 훨씬 크게 그려볼 수 있게 한다. 다만 한 가지, 몰후 150년 된 요시다 쇼인 유적지에 순례자들이 줄을 잇는 것에 비해 100년 전 저격된 이토 히로부미 유적지는 적막할 정도로 찾는 이가 없다는 저자의 지적이 그 이유에 대해 궁금함을 갖게 한다.

이번 호에는 한 편의, 그러나 두둑한 일반논문을 실었다. 정용욱의 「일본인의 ‘전후’와 재일조선인관: 미군 점령당국에 보낸 편지들에 나타난 일본 사회의 여론」은 패전 직후 미군 점령당국에 보통의 일반인들이 보낸 편지를 통해 당시 일본인들의 관심사와 여론형성의 추이를 그 저변에서부터 살펴볼 수 있게 하는 인상적인 연

구이다. 특히 주목할 지점 중 하나는 패전 후 꽤 이른 시기부터 전쟁책임 회석 분위기, 전도된 인식이 일반 민중들 사이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런 전도된 인식을 가져온 결정적인 계기는 다름 아닌 “천황의 전쟁범죄 면책”이었으며 전쟁책임에 대한 이런 심리적 태도를 보건대 “일본 사회 또는 일본 국민 전체적으로 전쟁책임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 저자의 분석이다. 일본인들의 전도된 인식을 확인시켜 주는 또 다른 주제가 구식민지인들에 대한 태도로, 전쟁책임 문제나 식민지배에 대해 진지한 성찰의 기회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일본인들은 패전 직후의 혼란과 고통의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할 수 있는 손쉬운 대상으로 구식민지인들을 지목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 논문의 장점은 그동안 자주 지적되어 온 전후개혁의 불철저성, 천황의 전쟁책임 면책과 일본 사회의 전쟁책임 방기,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 의식의 부재가 서로 연동하고 있었음을 ‘보통’의 일본인들의 의식형성과 그 변화를 통해 면밀히 보여 준다는 점이다. 저자가 말미에 약속하고 있는 재일조선인들이 보낸 편지에 대한 후속작업이 기다려진다.

“한국인의 일본인식 100년”이란 주제로 이번 특집을 기획하게 된 동기는 자명하다.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으며 한국학계에서 다양하게 준비하는 성찰과 검토 작업 속에 『일본비평』이 준비한 ‘메뉴’이다. 편집진은 개화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일관계에서 주로 ‘지배’의 위치를 점해 온 일본에 대해 한국을 인식주체로 놓고 우리가 일본에 대해 생산한 담론을 점검해 보고자 하였다. 당연히 ‘누구의’, ‘어떤’ 일본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인물 선정의 기준은 영향력 있는, 그래서 당대에 한국의 일본인식, 일본과의 관계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

물로 하였다. 일단은 한 세기에 걸친 일본인식의 스펙트럼을 원경(遠景)으로 파악하는 데 방점이 찍힌 것이라 하겠다. 여기에서 좀더 근접하여 여러 위치의 한국인들이 그려내는 더 다양한 모습의 일본상을 살펴보는 것은 또 다른 작업이 될 것이다. 특히 이번 기획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인물, 그동안 일본과 관련해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인물들을 포괄하고자 했고 필진도 ‘일본전공자’를 넘어 가능한 한 다양한 분야에서 초대하고자 했다. 부디 흥미할 만한, ‘영양가 있는’ 메뉴가 되기를 희망한다.